



도민 주도 먹거리 정책 실현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자치도 먹거리 속의기구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민 주도 먹거리 정책 실현을 위한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관영 지사 '오늘부터 완주군민'

삼봉지구 전입신고로 '생활 속 도정' 본격 시동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군민이 된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9시, 완주군 삼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일정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이전을 넘어, 도지사가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염원하며 완주군민과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함께 숨 쉬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적 행보로 보인다. 김 지사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삼봉지구 내 아파트로 이주해 실거주를 시

작했다. 도에 따르면 이들 도지사 부부는 이미 새 거처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아침에는 산책을 즐기고, 인근 편의점에서 생활용품 구매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통해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주민들과의 거리 좁히기다. 김 지사는 '찾아가는 도정'과 '듣는 행정'을 강조해온 만큼, 도지사로서의 생활을 따로 분리하기 보다는 실제 완주군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도민들의 삶과 애로사항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겠다는 뜻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보인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리더십은 그동

안 김 지사가 강조해 온 '도민 중심 행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 지사가 완주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도정을 책임지는 행정 리더로서 '현장 중심 도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 지사가 현장 중심 지역 밀착형 행정을 강조하며 현장을 직접 누비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완주로의 거주지 이전을 통해 도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과 함께 완주군민의 입장에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바라보겠다는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김 지사와 정동영·이성운 국회의원이 함께 도청 브리핑룸에서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 '상생발전 과제 105개'에 대

한 책임 이행 방안 등을 도민 앞에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제들은 완주군민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다. 김 지사의 완주군으로의 전입신고와 도민 소통, 완주·전주 통합 관련 전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생발전 과제 이행 발표 등의 기자회견이 하루에 몰려 있다. 이날 일정은 김 지사가 도민의 일상과 행정을 어떻게 연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민의 원강한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가 완주군민의 입장에서 완주와 전주 간 통합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세계 최초 이차전지용 CMC 바인더 전용 생산

정밀화학기업 지엘켄,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준공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이차전지용 고성능 바인더 소재를 생산하는 정밀화학기업 (주)지엘켄이 18일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에 군산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원민 (주)지엘켄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영대 국회의원,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 문문철 산업단지공단 분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기업의 도약을 축하했다. 2004년 설립된 (주)지엘켄은 식물성 섬유소에서 추출한 천연 소재 CMC(Carboxymethyl Cellulose)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인허가를 받아 생산하고 있는 정밀화학소재 전문기업이다. 그동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제품을 공급해왔으며, 최근에는 리튬이온폴리머 2차전지의 음극 바인더용 고순도 CMC를 개발하며 배터리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군산공장은 약 300여원을 투자해 새만금 비음도 내 군산2국가산업단지 6,000여 평 부지에 건립됐으며, 세계 최초로 이차전지용 CMC 바인더만을 전용으로 생산하는 제조 플랜트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지엘켄은 자사가 생산하는 고순도 CMC가 전극 내 기계적 안정성과 전기화학적 특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핵심 소재라고 설명하며, 향후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함께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매출 1,000억 원 돌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만호 기자 · 군산=김만호 기자



지난 18일 열린 지엘켄 군산공장 준공식. <사진=군산시청 제공>



한류 원조 태권도, 세계로 이어지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내일까지 무주서

'한류원조 태권도! 태권도문화엑스포'를 통해 세계로 이어지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 17일 시작된 제18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22일까지 무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최·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에서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세계 21개국 4,0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18일 태권도원에서 열린 태권

도 세미나를 비롯해 시범 경연, 각종 체험 등에 함께 했다. 19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품새 경연 및 A매치, 20일에는 겨루기 경연과 A매치 대회에 참가했으며 이틀간 열린 '한여름 밤의 콘서트'를 통해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K-팝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수들은 "태권도의 나라, 그것도 태권도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공존하는 태권도원에서 세계 각국

의 선수들과 같이 배우고 실력도 겨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너무 기쁘다"라며 "한국의 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탐방의 시간이 너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21일에는 폐회식과 환송 만찬을 마치고 반디랜드를 포함해 전북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지역 연계 문화탐방의 시간이 마련된다. 22일에는 해외 선수단 퇴촌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피어나다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영호남의 중심지, 남원으로!